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최근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운산업 변화와 전망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최근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동향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운산업 변화와 전망	5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8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2
--------------------	----



최근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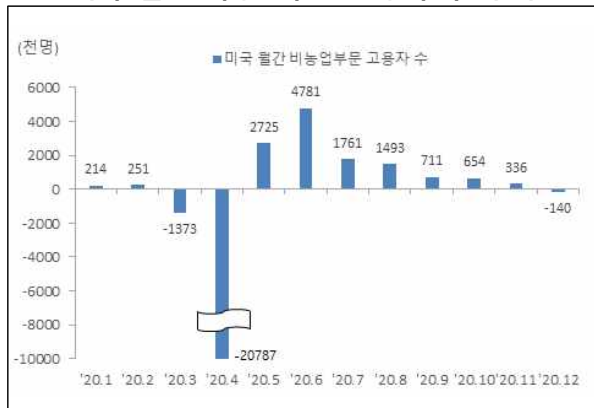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美 연준은 1월 FOMC를 통해 미국 경기 전망 판단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
- ◆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 가능성을 높임

□ 美 연준은 1월 FOMC를 통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

- 연준은 '21년 1월 정례 FOMC(1.27~28)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0~0.25%)으로 동결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도 월 1,200억 달러(국채 800억, MBS 4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
- 고용 개선 추이 약화와 물가 하락 가능성을 근거로 경기 회복 속도에 신중한 견해
 - '20년 12월 당시 경제활동과 고용이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금번 FOMC에서는 “최근 몇 달 간 완만해졌다*”는 표현으로 뉘앙스를 완화
 - * 미국 월간 비농업부문 고용 추이(천명): 711('20.9)→654('20.10)→336('20.11)→△140('20.12)
 - 고용시장 회복 지연이 소비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며 물가 하락 압력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결정
 -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반등이 전년도('20년)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 크며,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발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테이퍼링 등 긴축정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
 - *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20년 3~4월의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상승이 포착될 수 있다고 발언

미국 월간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추이



자료: Bloomberg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 추가 재정정책 필요성 재부각,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여론 강화 전망

- 연준의 일관된 통화 완화정책에도 경기 회복 한계가 확인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
 - 연준이 '20년 3월 이후 1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였음에도 '20년 4분기 들어 경기 회복 지연 조짐이 포착되며 재정정책 강화 여론 부상 전망
 - * 연준 총자산은 '20년 2월 4.16조 달러에서 '21년 1월 7.40조 달러로 77.8% 증가
 - 파월 의장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 미국은 '20년 3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1.9조 달러 규모의 7번째 경기부양안 제시(1월 15일)
 - 당초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1) 연준의 재정정책 강화 주문, 2)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에 따라 의회 협상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 우세

코로나19 대응 미국 재정정책 정리

(단위 : 십억달러)

일자	법안 및 금액	주요 내용
'20.3.6	코로나19 대응 1차 재정지원, 83억 달러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 백신 및 여타 의료 물품 개발 - 주 및 지방 공공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 피해 소상공인 대출
'20.3.13	국가비상사태선포, 500억 달러	- 확진자 치료, 진단능력 확충 - 신속 진단체계 마련 - 국가전략비축유 최대 확보 - 학자금대출 이자 유예
'20.3.18	코로나19 대응 2차 재정지원, 1,000억 달러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 유급 병가 지원 - 실업보험 및 취약계층 식품 지원 - 코로나19 무료검사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 기금 확충
'20.3.27	코로나19 대응 3차 재정지원, 2조 2,000억 달러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 가게 및 근로자 현금지급 확대 - 기업 신규대출 지원 - 보건의료 시스템 지원 - 재난구호기금 지원
'20.4.24	3차 재정지원 보완, 4,840억 달러 (Paycheck Protection Program Healthcare Enhancement Act)	- 중소기업급여보호프로그램 재원 확충 - 병원 및 코로나19 검사 지원
'20.12.27	코로나19 대응 4차 재정지원, 9,000억 달러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 실업수당 및 재난지원금 확충 - 백신개발 및 배포 등 보건 지원 - 긴급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주 : 각종 언론 정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운산업 변화와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김대진 (moogi16@kdb.co.kr)

- ◆ 코로나 9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Lock down), 이동 제한으로 세계 항만 조업 중단, 선박 운항 중단 등 세계 물류망이 단절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 후 점차 회복중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운산업도 국제분업구조 변화, 경쟁력 패러다임 변화 등 코로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세계 경기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후 회복중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교역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경제 성장률 하향
 - IMF('21.1)는 '20년 경제성장률을 세계평균 $\Delta 3.5\%$, 선진국 $\Delta 4.9\%$, 한국 $\Delta 1.1\%$ 등으로 제시
 - ※ 한국은행은 '20년 경제성장률을 $\Delta 1.0\%$ 로 제시('21.1)

IMF 세계경제 전망

(단위: %)

	2020년			2021년		
	6월	10월	'21.1월	6월	10월	'21.1월
세계	-5.2	-4.4	-3.5	5.4	5.2	5.5
선진국	-8.1	-5.8	-4.9	4.8	3.9	4.3
신흥개도국	-3.1	-3.3	-2.4	5.8	6.0	6.3
한국	-2.1	-1.9	-1.1	3.0	2.9	3.1

자료 : IMF(2020.10), World Economic Outlook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주요국 공장 폐쇄, 공항 및 항만 조업 중단, 수출입 화물 운송선박 운항 중단 등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었으나 점차 회복중
 - 중국은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출근 금지령('20.2) 발동, 주요국 이동 제한에 따른 여객선 운항 중단, 국경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공급 중단
 - 원자재 수출입 및 완제품 해상운송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공장 가동률 하락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1H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가동률 하락 등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감소율은 29.2%에 달한다고 발표('20.9)

□ 주요국 검역 강화 및 세계 주요 선사들의 선복축소 등으로 해상운송 지연 및 운임 상승

- 주요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역 기준 적용 및 검역 강화 등으로 해상운송 비용 증가 및 소요시간 상승
 -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귀항하는 선박의 경우 14일간 항만의 접안을 제한하는 조치 발표('20.4)
 - 베트남은 코로나19 위험국에 기항한 선박은 입항 전 검역 시행 후 입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원교대 및 상륙 금지('20.6)
- 세계 주요 선사들이 선복량을 축소하면서 해상운송은 지연되었으나, 컨테이너선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입 물량 증가하면서 운임 상승
 - '20년 상반기 컨테이너선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해운동맹선사들은 400회 이상 출항 취소, 선복 10% 이상 감소하면서 해상운송 지연(S&P Global Platts, '20.9)
 - 하반기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입 물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선사들은 선박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선복부족으로 컨테이너 운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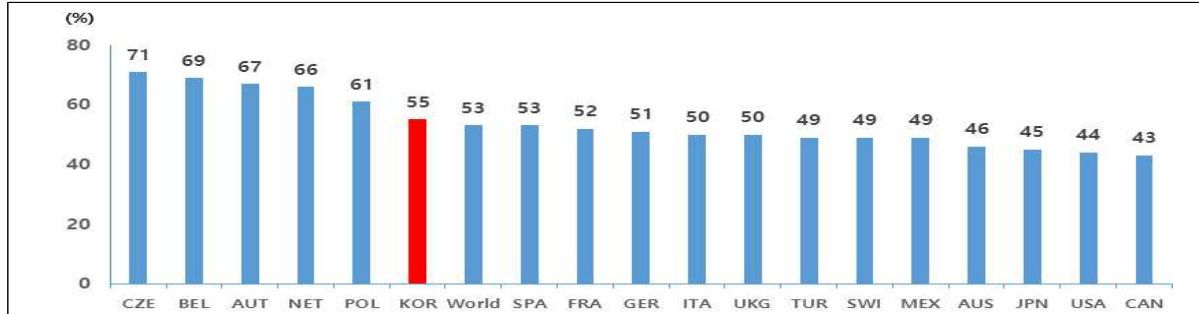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운임(CCFI, pt)는 939('20.1) → 1,492('20.12)로 37.1% 상승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거래 확대, 국제 분업구조 변화로 디지털화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비용 관리 등이 새로운 해운기업 경쟁력으로 부상

- 코로나 팬데믹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금지,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등으로 '비대면 거래' 확대
 - 인터넷(모바일) 쇼핑 및 온라인 교육 증가 등 세계 디지털 거래 수요 증가
 - 해운산업의 거래형태도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

※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 Maersk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선복 예약 10% 이상 증가('20.7)
- 코로나 이전 저비용 대량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세계화(Globalisation)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경험으로 지역화(Regionalisation) 추세로 변화
 - 세계화로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국제 분업 시스템 구축
 - 세계 국제분업을 평균은 53%이며 한국은 55%로 평균대비 높은 편임
 - *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에서 국제분업을 2개 이상국가가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로 정의('20.2)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요 제조업체들은 공급망 붕괴를 대비하여 인접국 및 자국 생산 검토
 - * 구글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4a'를 중국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생산할 계획('20.4), 프랑스 르노 자동차는 중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던 전기차 모터 생산을 프랑스 클레옹 공장에서 진행('20.7)

OECD 주요국의 국제분업율 현황



주 : OECD 36개국 중 세계교역비중이 0.5% 이상인 18개국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2),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을 활용한 선사들의 디지털화, 플랫폼 구축 역량 등이 해운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
 - Maersk는 IBM과 Block Chain 기반 물류 Platform인 Tradelens를 개발하여 컨테이너 사업 디지털화 및 공급사슬관리(SCM) 효율화 추진
 - 175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0개 이상 항만과 터미널 Data를 통해 3,000만TEU 이상의 화물 추적(‘20.10월 기준)
 - Platform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기관)들은 상호연결되어 모든 물류구간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가능
 - 국내에서도 해운정보 디지털화와 표준화를 위해 DCSA(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 구성
 - 현대상선(HMM)은 카카오와 손잡고 AI 기반 비즈니스 Platform 개발 추진(‘20.5)

- 과거 해운기업 핵심경쟁력인 **운영비용 감축 역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된 플랫폼과 표준화를 통한 **거래비용* 관리 능력**으로 변화
 -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어떠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 과거 선사들은 운항비와 연료비 등의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략 추구
 - 코로나19 이전 Maersk와 MSC 등 글로벌 선사들은 선대규모 확대,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비용우위 확보 전략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거래 확대, 자국생산 및 자국소비 증가시 해운기업 수익성은 거래비용 관리 역량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 화주는 해상운송 외에도 육상, 항공, 트럭킹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생산지에서 목적지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것을 요구
 - Maersk는 물류기업 인수 등을 통한 물류통합사로 진화하면서 거래비용 관리 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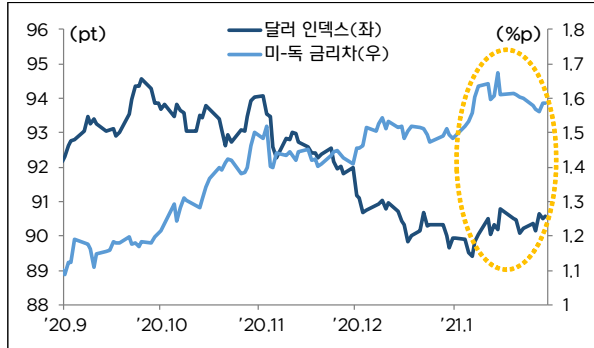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 혜 진 (ghjkim@kdb.co.kr)
 장 명 화 (clarajang@kdb.co.kr)

- ◆ **(환율)** 1월 달러화 가치 반등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월 급격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으나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
 - ◆ **(금리)** 1월 미 국채 등 주요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월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주가)** 선진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호조세였으나 월말 반락 후 전월말 대비 하락 마감하였으며, 2월은 변동성 증가에 따른 혼조세 예상
- **(환율) 1월 중 달러화는 블루웨이브 등으로 강세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달러화 수요 증가로 상승하였음. 2월에는 달러화 및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제한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변동성 장세 예상**
- (달러화) 달러 인덱스*는 1월 중 블루웨이브 및 FOMC 결과에 대한 경계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2월에도 이들 요인의 영향이 이어지며 변동성을 보일 전망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동향) 달러 인덱스는 월초 '18.3월 이후 최저치(89.422pt)까지 하락하였으나, 1.5일 민주당의 조지아주 상원선거 승리 이후 반등
 - 대규모 재정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한 미-독 금리차 확대가 달러화 강세로 연결
 - 한편,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테이퍼링* 시기에 대하여 우려
 - * 테이퍼링은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13.5월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14.1~10월 자산매입 규모가 축소되고 '15.12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등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에 대하여 경계
 - 26~27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하향조정된 경기 진단*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 달러화 가치 상승
 - * 경제활동과 고용에 대한 판단이 기존의 "회복을 지속했다"에서 "최근 몇 달간 완만해졌다"로 변경
 - (전망)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및 증가된 유동성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추가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추가부양책 진전 등에 따른 경기전망 및 시장심리의 변화가 당분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화) 달러/유로 환율은 1월 중 달러화 강세, 유럽 국가 봉쇄조치 연장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2월에도 유로존 경기전망 악화 등으로 하락압력이 우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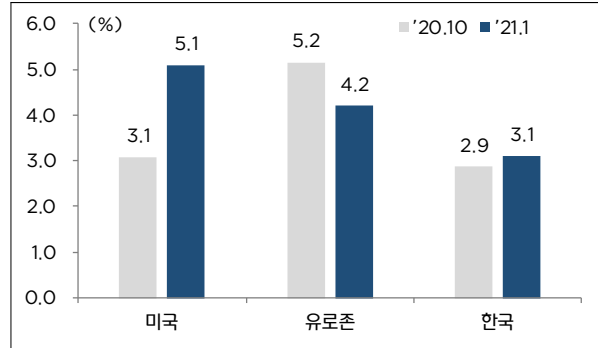
- (동향) 월초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출발하였으나, 미-독 금리차 확대 및 달러화 반등, EU 회원국의 봉쇄조치 연장, 이탈리아 연정 불안 등으로 하락 전환
- (전망) 2월에도 최근 유로존 경기전망 악화*,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압력이 유지될 전망
- * IMF는 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전망치는 2%p 상향한 반면 유로존은 1%p 하향조정
- ** 1.27일 ECB 관계자가 "필요한 경우 금리를 0% 이하로 더 낮출 수 있다"고 언급
- 그러나 백신접종의 진전, EU 경제회복기금 집행에 대한 기대 등은 달러/유로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

최근 미-독 금리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주 : 미-독 금리차는 국제 10년물 기준
 자료 : Bloomberg

최근 IMF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경



자료 : IMF

- (원화) 원/달러 환율은 1월 중 국내 달러화 수요 증가로 달러화 강세폭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2월에는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추가 급등은 제한적일 전망
- (동향) 1월 중 외국인 주식매도*와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국내 외환 시장 내 달러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전월말 대비 30원 이상 상승
- * 외국인 주식투자는 25일까지 누적기준으로 순매수를 기록하였으나, 26~29일 매도세가 집중(총 5.6조원)되어 26일부터 순매도로 전환
- 1월 개인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51억달러*로, 1월 무역수지(40억달러)를 감안할 때 달러화 수요가 공급 대비 우위인 시장이 형성
- * '20년 개인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총 197억달러, 월평균 16.5억달러
- (전망) 단기적으로 달러화 가치,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양상 등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수출 회복 등이 급등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예상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12월말	'21.1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6.140	96.479	89.927	90.560	+0.70%
엔/달러	109.61	108.66	103.26	104.75	+1.44%
달러/유로	1.1456	1.1219	1.2217	1.2135	△0.67%
원/달러	1,115.7	1,156.4	1,086.3	1,118.8	+2.99%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향후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동향) 미 국채 10년 금리는 15일 블루웨이브 확정 후 1.2%에 근접 상승했다가 연준의 FOMC 및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해 1.0% 수준 마감
 - 바이든 정부 경기부양책의 실현 가능성 증가 및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 요인이 월 중반까지 금리 상승을 견인
 - * IMF는 신임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1조9천억 달러)의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20.10월)에서 5.1%로 상향조정
 - 월 후반 FOMC를 통한 美 연준의 경기회복세 둔화 진단 및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코로나 확산 지속 등에 따라 금리 상승세 주춤
 - 유럽과 일본은 저금리 횡보 기조, 특히 더블딥 우려 및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유럽은 -0.5%대 금리 유지
- (전망) 각국 경제정책 실행 기대감 등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 있으나,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 진척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 존재하나, 유럽의 경우 경기전망 악화 등에 따른 하락 요인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코로나 백신 보급 우려 등이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주요국 국채 금리 추이

	'18년말	'19년말	'20.12월말	'21.01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2.6842	1.9175	0.9132	1.0655	+15.23bp
독일채 10y	0.2420	-0.1850	-0.5690	-0.518	+5.10bp
일본채 10y	0.0030	-0.0110	0.0210	0.054	+3.30bp

자료 : Bloomberg

□ (주가) 증시는 대체적인 호조세였으나 월말 반락하여 전월말 대비 하락 마감, 변동성 증가에 따른 혼조세 전망

- (동향) 1월 주요국 주가지수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기업들의 실적발표, 코로나 백신 공급 등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 미국은 15일 이후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실행에 대한 기대, 대형 기술기업 실적 호조 기대 등에 따라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
 - * (20일) 다우존스 : 31,188.38 / (25일) 나스닥 : 13,635.99 | S&P500 : 3,855.36
 - 반면, 월 후반은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의 이례적 주가 급등락 등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증가, 코로나 확산 지속 및 백신보급 지연 우려 등으로 투자 심리 다소 위축되어 다우존스지수는 3만선을 하회 마감

- 유럽은 미국과 유사하게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와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유로 Stoxx50 지수가 등락 반복하다 전월 말 대비 2.0% 하락 마감
- 일본 Nikkei 지수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6일)으로 하락 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반등, 호조세 이어갔으나 코로나 확산 지속 우려 등으로 조정되어 전월말 수준 마감

○ (전망) 증시 변동성 증가에 따른 혼조세 전망

- 2월 초 아마존, 알파벳(구글) 등 주요기업 실적발표, 코로나 백신 배포 및 경기부양책 진전 등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등으로 혼조세 예상

주요국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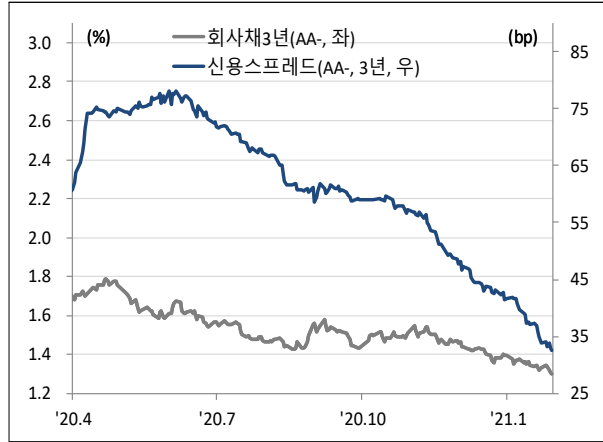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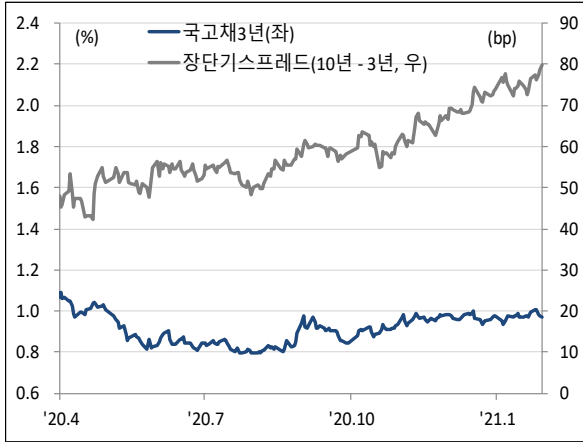
	'18년말	'19년말	'20.12월말	'21.01월말	전월대비
다우존스	23,327.46	28,538.44	30,606.48	29,982.62	△2.038%
유로 Stoxx 50	3,001.42	3,745.15	3,552.64	3,481.44	△2.004%
Nikkei	20,014.77	23,656.62	27,444.17	27,663.39	+0.799%

자료 : Bloomberg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장명화)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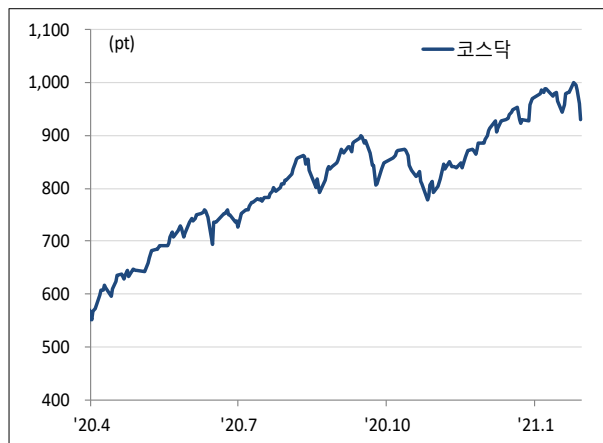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0.971% (2.2bp ↓), 신용스프레드 32.6bp (1.2bp ↓)



환 율 원/달러 1,118.8원 (15.6원 ↑), 엔/달러 104.75엔 (0.92엔 ↑)



주 가 코스피 2,976.21pt (5.24% ↓), 코스닥지수 928.73pt (5.23%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14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